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The Individual Variables,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Aff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이영선 · 이경님*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가정관리학과*

Young-Sun Lee · Kyung-Nim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different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aff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The sample consists of 868 seventh and eighth graders. Statistics and method for data analysis include Cronbach's alpha, percentage, means, standard deviation,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both withdrawn and aggressive, have lower achievement in school work. Boys experience more dir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Adolescents, especially boys, often experience indir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when they become withdrawn, own lower self-esteem, and have lower achievement in school work. Second, adolescents have more dir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when their parents are negligent of them. Also, adolescents seem exposed to indir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when they receive more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negligence from their parents. Third, adolescents experience more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whether it's direct or indirect, when they cannot get adjusted to peer relations and get teachers' supervision. Fourth, as to dir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withdrawal, one of the individual variables, is the most reliable prediction followed by gender, negligence, adaptability in peer relations, aggression, and teacher's supervision in sequence. For indir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withdrawal is the most reliable prediction followed by adaptability in peer relations, gender,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negligence in sequence.

Key Words :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withdrawl · aggression, self-esteem, abuse, peer relations

I. 문제의 제기

청소년들은 가족과 지내는 시간보다 또래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또래집단에 대한 확고한 소속감을 갖게 하며 나아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인지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그 이후 청년기나 성인기의 바람직한 사회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Bagwell, 1998). 그러나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며 비행, 우울 등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가져오게 한다(Kupersmidt & Coie, 1990).

최근 또래폭력, 또래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의 이름으로 청소년들 간의 공격행동이 급증하고 있다. 또래공격피해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받으며, 정서적 불안, 부정적 성격형성,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부적응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백경임, 서동인, 1993; Parker & Asher, 1987). 또한 이들은 외로움, 우울 및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함께 학교부적응을 보이며 나아가 등교거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

* Corresponding author: Kyung-Nim Lee
Tel: 051)200-7311 Fax: 051)200-7312
E-mail: knlee@daunet.donga.ac.kr

지고 있다(양원경, 도현심, 1999; Olweus, 1993).

근간의 보도에 따르면 또래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의 29%가 자살충동을 느꼈고, 62.6%가 가해학생에 대해 죽이고 싶은 강한 증오와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22%가 복통, 두통을 겪거나 20%가 악몽이나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3. 11. 9). 이처럼 또래로부터의 공격이나 폭력경험은 청소년의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을 야기하며, 이는 나아가 청년기나 성인기의 정신병리나 비행, 범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Parker & Asher, 1987) 그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래공격피해가 청소년의 성장과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어떠한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취약하게 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는 또래공격피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Olweus(1978)의 정의에 의하면, 또래공격피해(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는 한 학생이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인 행동은 크게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 지는데(Olweus, 1991), 직접적 또래공격은 또래에게 고의로 피해나 손상을 주기 위한 외현적 공격행동으로 때리기, 차기, 밀치기 등의 신체적 공격과 욕하기, 듣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조롱 등의 언어적 공격을 포함한다. 간접적 또래공격은 또래에게 고의적으로 학급활동에서 제외시키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소외시키기, 고립시키기,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배척시키기 등의 행동을 통하여 또래에게 심리적인 괴로움과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성, 학년, 자아존중감, 공격과 위축행동, 학업성적의 개인적 변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행동, 학대경험의 가족환경 변인과 교우관계 적응,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의 학교환경 변인 모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영향이 각각 개별적으로 검증되었으나 이들 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나 상대적 영향을 본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이 또래공격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의

년의 또래공격피해에 어떠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또래공격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대책방안에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은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1. 개인적 변인(성, 학년, 자아존중감, 공격, 위축 행동문제, 학업성적)은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2. 가족환경 변인(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적 양육행동, 신체·정서적 학대경험,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3. 학교환경 변인(교우관계 적응,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은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개인적 변인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개인적 변인과 가족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의 범주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개인적 변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연구되는 변인으로 성을 들 수 있다. 성에 따른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로부터 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현수, 1997; 이춘아, 2001). 그런데 피해유형에 따른 성차는 직접적인 명백한 괴롭힘은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며, 간접적인 관계상의 괴롭힘은 여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6). 그러나 직접적 괴롭힘은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나 간접적 괴롭힘은 성차가 없다는 보고(이점숙, 유안진, 1999; 임지영, 1998)도 있어 일관성이 없다.

또래공격피해의 시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이춘재, 광금주, 1999; Olweus, 1993). 이중에서도 초등학교 후기에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이 또래공격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Olweus, 1991). 또한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또래공격피해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초등학교 중기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 절정을 이루다가 그 이후 감소한다고 밝혀지고 있다(Slee, 1994).

자아존중감은 또래공격피해아의 개인적 특성 중 가장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는 변인 중의 하나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한 평가 또는 느낌이다(송명자, 1995). 낮은 자아존중감의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이 가치없다고 느끼므로 또래들과 충돌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의 청소년은 또래공격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또래공격피해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공격피해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공격피해를 많이 경험한다고 밝혀지고 있다(이춘아, 2001; 이해경, 김혜원, 2001; Slee, 1994). 이러한 일치된 결과들에 의해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또래공격피해아의 행동특성이 또래로부터의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됨이 밝혀지고 있다. Olweus(1978)는 또래공격피해를 유발하는 특징적인 두 유형의 행동특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또래공격피해아를 수동적 피해아(passive victims)와 도발적 피해아(provocative victims)로 구분하였다. 수동적 피해아는 만성적인 또래공격피해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들은 또래의 공격이나 폭력에 대해 허약하고 성공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위축된 행동 특성으로 인하여 자신을 주장하는데 매우 취약하다. 그리하여 위축된 청소년들에게 공격적인 가해아들은 부정적인 보상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공격행동이 강화되므로 이들 수동적 피해아들은 지속적으로 가해아들의 공격 행동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10~20% 정도가 불안해하고 위축된 행동특성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가해아로부터 또래공격피해를 경험한다고 밝혀지고 있다(Berk, 1997). 반면 도발적인 피해아는 수동적인 피해아보다 훨씬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또래간의 관계에서 쉽게 화를 내고 자주 충돌하며, 폭력이나 공격 등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래공격피해아의 행동특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위축, 미성숙의 내재화 행동문제 및 공격 행동, 과다행동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또래공격피해를 많이 경험한다는데 일치되고 있다(이점숙, 유안진, 1999; Schwarz, Dodge & Coie, 1993). 이로써 또래공격피해아의 위축과 공격행동은 또래로부터의 공격을 쉽게 유발하게 하는 전형적인 행동특성이라 볼 수 있다.

낮은 학업성적이나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청소년

년의 또래공격피해와 관련이 있다. 낮은 학업성적은 위축 문제, 행동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Forehand et al, 1986), 학업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또래공격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학업성적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춘아, 2001),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공격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었다(조샘이, 2001). 이로써 청소년의 낮은 학업성적은 또래공격피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개인적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성, 학년, 자아존중감, 공격, 위축 행동문제와 학업성적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가족환경 변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또래공격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족환경 특성이 또래공격피해에 취약하게 하기도 하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중요한 가족환경 변인이며 청소년의 행동이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신감과 관련되어 원만한 교우관계에 도움이 되므로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Perry, 1988)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여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부적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도현심, 최미경, 1998). 반면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의 자녀들은 자신감이 없고 쉽게 좌절하기 쉬우며, 나아가 위축된 행동을 보이므로 또래로부터의 공격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Troy & Stroufe, 1987)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거부, 제재의 양육행동은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경님, 2001; 이춘아,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함께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또래공격피해의 취약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또래공격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한 간접적인 유발요인이라 볼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신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의 공격을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행동특성인 위축과 공격적인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Kaufman & Cicchetti, 1989).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또래공격피해의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래공격피해와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아동과 방임된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또래공격피해의 경험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Schwartz et al, 1997),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공격성과 공격피해 모두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현수, 1997).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또래공격피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또래공격피해는 부의 직업과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춘재, 박금주, 1999; 임경원, 1997). 그러나 부모의 학력, 부의 직업과 또래공격피해 간에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이춘아, 2001)도 있어 또래공격피해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들은 서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가족환경 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적 양육행동, 신체·정서적 학대경험 및 방임경험을 선정하여 이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학교환경 변인

청소년의 학교환경 변인은 또래공격피해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교우간의 상호작용은 다른 어떤 대인관계보다 빈번하고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및 나아가 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래공격피해는 이러한 교우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과정에서 야기되므로 청소년의 교우관계 부적응은 또래공격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볼 수 있다. 또래공격피해와 교우 혹은 또래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친구의 지지가 적을수록,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 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해경, 김혜원, 2000; 조샘이, 2001) 한 명의 친구보다는 여러 명의 친구를 폭넓게 사귀는 것이 또래공격피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신재은, 1999). 또한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은 또래에 의해 거부당하고 우정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rry, Kusel & Perry, 1988). 그러므로 청소년의 교우관계 부적응은 또래공격피해를 증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교사는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청소년의 학교생활 지도와 감독의 역할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은 또래공격피해를 예방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사의 지도감독이 또래공격피해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담임 교사가 학급에서 발생한 또래폭력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을수록 또래공격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며(정정호, 2000), 또래공격피해를 감소시키는데 교사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대응은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권신영, 2000). 그런데 또래공격피해의 유형별로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지도감독은 직접적인 명백한 괴롭힘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인 관계상의 괴롭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안재진,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 변인으로 교우관계 적응,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과 2학년 8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학생이 468명(53.9%), 여학생 400명(46.1%)이고, 1학년이 444명(51.2%), 2학년이 424명(48.8%)이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또래관계에서 공격이나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연령이 초등학교 후기와 중학교 시기인 10-14세로 보고되고 있고(Olweus, 1991) 또래공격피해의 경험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절정을 이룬다고 보기 때문이다(Slee, 1994). 연구대상의 청소년과 그들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연구대상의 아버지 연령은 41~50세가 620명(8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세 이상이 60명(6.9%)이었으며, 어머니 연령은 41~50세가 586명(6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세 이하가 234명(27.0%)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12명(4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졸업 이상이 298명(34.4%)이었으며,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484명(5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졸업 이상이 195명(22.4%)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상공업, 서비스업이 274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 기술직이 181명(20.9%)이었으며,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취업 유 484명(55.7%), 취업 무 346명(39.9%)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101~200만원이 241명(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00만원이 221명(25.5%), 301만원 이상 156명(18.0%)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N=868)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학년	1학년	444(51.2%)	아버지 직업	전문대 졸업	28(3.2%)
	2학년	424(48.8%)		또는 대학중퇴	
성별	남자	468(53.9%)	어머니 직업	대학졸업이상	195(22.4%)
	여자	400(46.1%)		무응답	61(7.0%)
아버지 연령	40세 이하	58(6.7%)	아버지 소득	대기업주, 전문직	137(15.8%)
	41-50세	620(83.0%)		사무직, 기술직	181(20.9%)
	51세 이상	60(6.9%)		상공업, 서비스업	274(31.6%)
	무응답	30(3.5%)		피고용 기능인	101(11.6%)
어머니 연령	40세 이하	234(27.0%)	어머니 소득	무직	16(1.8%)
	41-50세	586(67.5%)		기타	110(12.7%)
	51세 이상	22(2.5%)		무응답	49(5.6%)
	무응답	26(3.0%)		취업 유	484(55.7%)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68(7.9%)	가계 소득	취업 무	346(39.9%)
	고등학교 졸업	412(47.5%)		무응답	38(4.4%)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중퇴	37(4.3%)		100만원 이하	135(15.6%)
	대학졸업이상	298(34.4%)		101-200만원	241(27.8%)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00(11.5%)	201-300만원	221(25.5%)	
	고등학교 졸업	484(55.8%)	301만원이상	156(18.0%)	
			무응답	114(13.1%)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또래공격피해 척도와 개인적 변인, 가족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었다.

1) 또래공격피해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춘아(2001)의 '피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이춘아가 Perry, Kusel과 Perry(1988)가 제작한 수정된 또래지명 척도와 Crick과 Grotpeter(1995)의 또래보고식 사회경험질문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자기보고식으로 재구성하여 타당화 하였다. 직접적 또래공격피해 6문항, 간접적 또래공격피해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공격피해의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직접적 또래공격피해 .78, 간접적 또래공격피해 .88이었다.

2) 개인적 변인

(1) 성과 학년

청소년의 성과 학년은 질문지의 배경변인을 묻는 문항의 응답에 근거하여 가변인 처리하였다.

(2)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4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3) 위축과 공격행동 문제

청소년이 지각한 위축과 공격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주(1997)의 청소년용 행동문제의 척도에서 위축행동 6문항, 공격행동 6문항 모두 12문항을 선정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런 편이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위축과

공격행동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위축 .69이며, 공격 .71로 나타났다.

(4) 학업성적

청소년의 학업성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희화(1998)가 사용한 학업성적 측정을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1~5등 1점, 6~10등 2점, 11~15등 3점, 16~20등 4점, 21~25등 5점, 26~30등 6점, 31~35등 7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음을 의미한다.

3) 가족환경 변인

(1) 어머니의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이 제작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중 애정영역 9문항, 권위주의적 통제영역 9문항 모두 18문항을 선정하고 청소년용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더 애정적이고 더 통제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애정적 양육행동 .93, 통제적 양육행동 .79로 나타났다.

(2) 신체·정서적 학대경험과 방임경험

청소년의 신체적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중 폭력척도를 수정·보완한 권자영(1991)의 '신체적 학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는 신영화(1986)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방임은 아동학대 국제 상임 위원회(ISCCA : International Standing Committee of Child Abuse)가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홍은주(1998)가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학대 5문항, 정서적 학대 5문항, 방임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없었다' 1점, '가끔 그랬다' 2점, '자주 그랬다' 3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신체적 학대 .76, 정서적 학대 .78, 방임 .76으로 나타났다.

(3) 사회경제적 지위

청소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경진(2000)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기준을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하위요인 측정치를 합산하여 표준점수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이하 1점, 고등학교 졸업 2점,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중퇴 3점, 대학 졸업이상 4점으로 평정하였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이하 1점, 101~200만원 2점, 201~300만원 3점, 301만원 이상 4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학교환경 변인

(1) 교우관계 적응

청소년의 교우관계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윤희(1995)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중 교우관계 8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2)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교사의 지도감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상균(1999)의 '폭력허용적 학교환경 척도' 중 교사의 폭력허용에 관한 문항을 박미연(2000)이 수정·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또래공격행동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2004년 2월 13일에 측정도구 문항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와 연구절차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시내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1학년 3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예비조사의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04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 진구, 연제구, 사하구에 소재한 중학교 4개교에서 무선표집한 1학년 14학급, 2학년 14학급 모두 28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과목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 방법을 설명한 후 모두 910명의 학생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86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0.0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검토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연구문제 1에서 표준화된 회귀 계수(β)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반여부와 전반적인 변수간 상관관계 및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각 독립변인간 상관관계 계수가 .59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위축(β=.39, p<.001), 성(β=.28, p<.001), 공격(β=.11, p<.01), 성적(β=.07,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31%를 설명하였다. 즉 청소년은 위축될수록,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공격적일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직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학년과 자아존중감은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표 2>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와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2	-.06	1.00													
3	.02	-.02	1.00												
4	.03	-.03	-.20**	1.00											
5	-.20**	-.05	.07	-.20**	1.00										
6	-.09*	-.02	.09**	-.45**	.13**	1.00									
7	.02	-.08*	-.15**	.36**	-.06	-.20**	1.00								
8	-.09**	-.06	-.05	-.21**	.22**	.19**	-.25**	1.00							
9	-.03	-.03	.09*	-.27**	.19**	.20**	-.34**	.52**	1.00						
10	-.02	.02	.09**	-.30**	.17**	.28**	-.42**	.37**	.59**	1.00					
11	-.00	-.01	-.26**	.14**	-.03	-.10**	.22**	-.04	-.08*	-.12**	1.00				
12	.13**	-.05	-.20**	.40**	-.04	-.49**	.37**	-.09**	-.17**	-.23**	.17**	1.00			
13	.02	-.12**	-.01	.13**	-.06	-.11**	.19**	-.02	-.10**	-.15**	-.06	.22**	1.00		
14	-.34**	.02	.11**	-.25**	.22**	.45**	-.11**	.18**	.25**	.27**	-.04	-.35**	-.15**	1.00	
15	-.19**	.01	.14**	-.31**	.15**	.49**	-.17**	.17**	.29**	.32**	-.05	-.48**	-.16**	.67**	1.00
평균	1.46	1.49	3.62	28.20	9.30	9.20	28.94	19.50	11.82	5.81	.09	20.81	12.61	9.90	6.50
표준 편차	.50	.50	1.90	5.11	2.20	2.31	9.00	6.61	2.80	1.52	2.32	4.70	2.64	3.80	2.74

*p<.05 **p<.01

1.성 2.학년 3.성적 4.자아존중감 5.공격 6.위축 7.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8.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9.신체·정서적 학대 경험¹⁾ 10.방임경험 11.사회경제적 지위 12.교우관계 적응 13.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 14.직접적 또래공격피해 15.간접적 또래공격피해

1) 학대경험의 하위영역 중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높은 상관(.64)을 보여 두 영역의 점수를 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3>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이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 또래공격피해		간접적 또래공격피해	
	B	β	B	β
성	2.14	.28***	.80	.14***
학년	.18	.02	.10	.02
성적	.15	.07*	.12	.08**
자아존중감	2.8E-02	-.04	-4.6E-02	-.09*
공격	.18	.11**	5.4E-02	.04
위축	.63	.39***	.52	.43***
R^2	.31		.28	
F	59.60***		53.03***	

* $p < .05$ ** $p < .01$ *** $p < .001$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위축($\beta = .43$, $p < .001$), 성($\beta = .14$, $p < .001$), 자아존중감($\beta = -.09$, $p < .05$), 성적($\beta = .08$,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28%를 설명했다. 즉 청소년은 위축될수록,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간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학년과 공격행동은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가족환경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가족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소년의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방임경험($\beta = .27$,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변량의 11%를 설명하였다. 즉 청소년은 방임경험이 많을수록 직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신체·정서적 학대경

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방임경험($\beta = .25$, $p < .001$), 신체·정서적 학대경험($\beta = .15$,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변량의 13%를 설명하였다.

즉 청소년은 방임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정서적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간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는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청소년의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교우관계 적용($\beta = -.34$, $p < .001$),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beta = -.08$,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적 또래공

<표 4> 청소년의 가족환경 변인이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 또래공격피해		간접적 또래공격피해	
	B	β	B	β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1.8E-02	-.04	-3.7E-03	-.01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3.9E-02	.07	-4.9E-03	-.01
신체·정서적 학대경험	8.3E-02	.06	.15	.15**
방임경험	.65	.27***	.43	.25***
사회경제적 지위(S.E.S)	-1.3E-02	-.01	6.7E-03	.01
R^2	.11		.13	
F	15.94***		19.83***	

** $p < .01$ *** $p < .001$

<표 5> 청소년의 학교환경 변인이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 또래공격피해		간접적 또래공격피해	
	B	β	B	β
교우관계 적응	-.27	-.34***	-.27	-.46***
교사의 지도감독	-.11	-.08*	-6.3E-02	-.06*
R ²	.13		.23	
F	63.98***		127.53***	

*p<.05 ***p<.001

격피해에 교우관계 적응(β=-.46, p<.001),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β=-.06,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교우관계에 적응하지 못할수록,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 적을수록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두 변인은 직접적 또래공격피해 변량의 13%를, 간접적 또래공격피해 변량의 23%를 설명하였다.

2.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또래공격피해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중 표준화된 회귀 계수(β)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을 투입한 후, 2단계에 청소년의 가족환경 변인 중 표준화된 회귀계수(β)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을 투입하고, 3단

계에 학교환경 변인 중 표준화된 회귀계수(β)가 유의한 변인을 투입하였다.

1)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개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1단계에서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대해 개인적 변인은 3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단계에서 가족환경 변인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2%가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 학교환경 변인이 추가되어 2%의 추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직접적 또래공격피해 변량의 35%를 설명해 주었다.

위계적 회귀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위축(β=.31, p<.001), 성(β=.27, p<.001), 방임경험(β=.13, p<.001), 교우관계 적응(β=-.11, p<.01), 공격(β=.09, p<.01), 교사의 지도감독(β=-.07, p<.05)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축, 성, 방임경험, 교우관계 적응, 공격,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이 성적보다 청소년의 직접적 또래공격에 상

<표 6>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성	2.14	.28***	2.18	.29***	2.10	.27***
성적	.15	.07*	.13	.07*	.11	.05
공격	.18	.11**	.15	.09**	.16	.09**
위축	.63	.39***	.60	.37***	.51	.31***
방임경험			.38	.15***	.33	.13***
교우관계 적응					-8.9E-02	-.11**
교사의 지도감독					-9.8E-02	-.07*
ΔR ²	.31		.02		.02	
R ²			.33		.35	
F	59.60***		81.38***		61.51***	

*p<.05 **p<.01 ***p<.001

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개인적 변인인 위축이 가장 큰 예측력을 보이며 성, 방임경험, 교우관계 적응, 공격,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개인적 변인인 위축이 가장 큰 예측력을 보이며 교우관계 적응, 성, 신체·정서적 학대경험, 방임경험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1단계에서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대하여 개인적 변인은 28%의 설명력을 가지며, 2단계에서 신체·정서적 학대 경험과 방임경험이 추가되어 3%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교우관계 적응이 추가되어 5%가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청소년의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대하여 3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위계적 회귀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위축($\beta=.29, p<.001$), 교우관계 적응($\beta=-.25, p<.001$), 성($\beta=.13, p<.001$), 신체·정서적 학대경험($\beta=.12, p<.01$), 방임경험($\beta=.09, p<.05$)이 청소년의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축, 교우관계 적응, 성, 신체·정서적 학대경험, 방임경험이 성적, 자아존중감,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보다 청소년의 간접적인 또래공격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적 변인(성, 학년, 성적, 자아존중감, 공격과 위축행동), 가족(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행동, 신체·정서적 학대경험, 방임경험) 및 학교환경 변인(교우관계 적응,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위축될수록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행동문제의 아동이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이경남, 2001; 이점숙, 유안진, 1999).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위축된 청소년은 자신의 욕구, 주장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방어하는데 매우 취약하므로 이들은 또래공격에 대항하지 못하고 순응적으로 반응한다(Olweus, 1979; Perry et al., 1990). 따라서 위축의 행동문제를 가진 청소년은 그

<표 7>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성	.80	.16***	.82	.15***	.73	.13***
성적	.12	.08*	9.5E-02	.07*	4.2E-02	.03
자아존중감	-4.6E-02	-.09**	-2.0E-02	-.04	4.8E-03	.01
위축	.51	.43***	.46	.39***	.34	.29***
신체·정서적학대			.14	.14***	.12	.12**
방임경험			.20	.11**	.16	.09*
교우관계 적응					-.15	-.25***
교사의 지도감독					-5.7E-02	-.05
ΔR^2	.28		.03		.05	
R^2			.31		.36	
F	53.03***		61.84***		56.94***	

*p<.05 **p<.01 ***p<.001

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성은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이춘아, 2001)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김현수, 1997)와 일치한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이유로는 남학생의 경우 또래간 상호작용이 여학생에 비해 직접적인 마찰이 많고 또래관계에 부정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Olweus, 1994; Perry et al, 1988). 그런데 직접적인 명백한 괴롭힘은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며, 간접적인 관계상의 괴롭힘은 여학생이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Crick & Grotpeter, 1996)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또래공격피해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황정난(2000)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과(이춘아, 2001)와 일치하였고,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성적이 부진하다는 연구결과(Batsche & Knoff, 1994; Olweus, 1978)와도 유사하다. 이는 학업성적과 자아존중감 및 위축의 상관관계 결과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학업성적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상관관계, 위축행동과는 약하지만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로써 낮은 학업성적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게 하고 위축행동과 관련되어 또래공격피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 유추된다. 공격 행동문제는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공격피해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행동특성이 공격이나 과다행동의 외현적 행동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Olweus, 1978). 이러한 이유로는 비효율적인 공격을 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도발적 피해아들은 상대를 긴장하게 하고 자극하므로 또래로부터의 직접적인 공격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Olweus, 1978; Perry et al, 1988). 그러나 공격행동 문제는 또래공격피해와 관련이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이경남, 2001; Olweus, 1994; Pierce, 1990). 이와 같이 공격행동문제와 또래공격피해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간에 일치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양원경, 도현심, 1999; 안재진, 2001; 이해경, 김혜원, 2001; Olweus, 1993)

와 유사하였다. 이로써 낮은 자아존중감이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방임경험이 많을수록 직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임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현수, 1997). 또 부모로부터 방임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정서적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간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정서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또래공격피해가 많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현수, 1997). 이에 대한 이유로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공격적인 역할과 공격을 당하는 역할을 동시에 학습하게 되므로 이들 청소년들은 또래공격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또래공격피해에도 취약하리라 생각된다(김현수, 1997; 조샘이, 2001). 그러나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은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간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낮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이춘아, 2001).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와 사회경제적 지위관련 변인들과 상관이 없다는 연구(이춘아, 2001)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또래공격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은 교우관계에 적응하지 못할수록,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을수록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지지가 적을수록 또래공격피해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조샘이, 2000)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와 한명의 친한 친구보다는 여러 명의 친구를 폭 넓게 사귀는 것이 또래공격피해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보고(신재은, 1999)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교우관계 적응이 또래공격피해의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교사의 지도감독은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학급에서 발생한 또래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 경험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정정호, 2000)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은 또래공격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와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공통적으로 개인적 변인인 위축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성, 방임 경험, 교우관계 적응, 공격행동,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는 교우관계 적응, 성, 신체·정서적 학대경험, 방임경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축행동이 청소년의 또래 공격피해에 가장 큰 예언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위축된 청소년은 또래공격피해에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위축된 청소년은 또래의 공격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순응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Olweus, 1979; Perry et al, 1990)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는 위축된 청소년과 상호작용을 하는 공격적인 또래들은 그들의 공격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보상이나 처벌 없이 더욱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수동적 피해자가 공격적인 또래의 공격성을 강화시키므로(Olweus, 1994; Pierce, 1990) 수동적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공격피해를 받는 메카니즘을 야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로써 위축이 또래공격피해를 예측하는 가장 위험한 개인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공격피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위축된 청소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응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우관계 적응은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와 간접적인 또래공격피해에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우관계 적응이 외현적인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와 심리적인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공통적으로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성은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공격피해를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직접적,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모로부터의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를 야기하는 중요한 가족환경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은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교사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지도감독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직접적 또래공격피해를 감소시키며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의 예방에 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사의 지도감독이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비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공격행동문제는 직접적 또

래공격피해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공격행동은 외현적 행동문제로 심리적인 간접적 또래공격피해를 유발하기보다는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직접적 또래공격피해를 야기하지 않나 추측된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신체·정서적 학대경험은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신체·정서적 학대경험은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에 취약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개인적 변인, 가족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접적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개인적 변인의 설명력이 31%였으며, 가족환경 변인과 학교환경 변인을 추가한 결과 각각 2%씩 증가하였다. 또한 간접적 또래공격피해의 경우 개인적 변인의 설명력이 28%,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을 추가한 결과 각각 3%와 5%씩 증가하였다. 이로써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개인적 변인의 설명력이 가장 크며, 이에 비해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 경험에 어떠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지에 제한되어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한 조사는 간과되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또래공격피해 경험의 빈도와 그 심각성의 정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관련변인을 밝힐 수 있는 세심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대한 관련변인의 관계 및 그 경로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위축행동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 경험이 위축행동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이들 변인들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종단적 접근을 통한 후속연구에서 밝혀져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에 위축행동 문제가 가장 큰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또래공격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위축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또래공격피해, 위축·공격행동, 자아존중감, 학대경험, 교우관계적응

참 고 문 헌

권신영(2000). 학교 또래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대응.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수(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동아일보. (대구/경북)학교폭력 피해학생 29%. "자살충동". 2003, 11, 8.

박미연(2000).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990.

백경임·서동인(199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 45-61.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신경진(200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아동간 책읽기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재은(1999). 청소년의 애착 및 우정관계와 또래괴롭힘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재진(2001).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유윤희(1995).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님(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8), 31-52.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리(2003). 중학생의 또래폭력행동피해와 일상활동경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87-111.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점숙, 유안진(1999).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이춘아(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춘재·곽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이해경·김혜원(2001). 초등학생의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심리 29(2), 117-138.

이해경·김혜원(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임경원(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분위기가 청소년의 또래공격성 및 또래희생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정호(2000). 또래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샘이(2001).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피해 집단별 관련요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은주(1998).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아상(Self-Image)으로 본 아동의 심리·사회발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정남(2000).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실태 및 관련변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gwell, C. L.(1998). Preadolescent friend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ion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Batsche, G. M. & Knoff, H. M.(1994). Bullies and their victims: Understanding a pervasive problem in the schools. *School Psychology Review*, 23(2), 165-174.

Berk, L. E.(1997). *Child Development(4th)*, Allyn and Bacon.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_____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 aggressio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6, 367-380.

Forehand, R., Long, N., Brody, G. H., & Fauber, R.(1986). Home predictors of young adolescents' school behavior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 Development*, 57, 1528-1533.
- Kaufman, J. & Cicchetti, D.(1989).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ag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sesment in a day-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16-524.
- Kupersmidt, J. B., & Coie, J. D.(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 Bullies and their whippingboys*. Washington. D. C. : Hemisphere.
- _____(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52-875.
- _____(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ggression*. (pp. 411-455)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_____(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pp. 315-341)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_____(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7), 1171-1190.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hip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_____(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Pierce, S.(1990). *The behavioral attributes of victimiz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Florida Atlantic University, Boca Raton.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Slee, P. T.(1994). Situational and internati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Schwarz, D., Dodge, K. A., & Coie, J. D.(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665-675.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1, 75-88.
- Troy, M., & Stroufe, L. A.(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and Psychiatry*, 26, 166-172.

(2004. 08. 26 접수; 2004. 10. 08 채택)